

# 교육이란 무엇인가?

박 동섭

[littleegan@gmail.com](mailto:littleegan@gmail.com)

# 교육안을 들여다 보니

-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아니 어떻게 볼 것인가?
- 학교에서 특수학급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반을 사랑반, 앞새반 하면서 1학년 몇 반(5반, 7반)이라는 이름과는 다른 이름표를 교실에 달아두지요.
- 좋은 뜻이겠지만 그것 또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요. 아이들이 수군댁니다.
- 저 아이는 '사랑반'아이라구요. 그러니 개랑 놀지 말라구요. 몇몇 아이들은 '개랑 손을 잡으면 손이 썩는다'며 누명아닌 누명을 씌우기도 한답니다.(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차별하는 법을 어른들에게서 배워서 나름 그 차별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지요)

# 교육안을 들여다 보기

- 요즘은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추세라 부분과목만 '사랑반'에서 배우고 나머지 과목은 교실에 와서 공부해요. 그런데도 원학급 아이들은 그 아이를 열외로 분류합니다.
- '사랑반'에서 왔기 때문이지요.
- 몇몇 착한(?) 아이들은 그 아이를 자기의 아주 어린 동생대하듯 하지요. 돌봐준다는 의미지만 같은 수준의 친구이고 싶은 그 아이는 그런 대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.

# 교육안을 들여다보기

-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6학년 아이가 있어요.
- 준호(가명)라는 아이는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(정식 영재교육원이 아니라 교사들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인데 부모들은 대단한 곳이라고 믿고 있는 곳).
- 그러나 영재육성이라는 국가의 방침에 형식적으로 따르는 곳, 수업을 모두 마친 교사들이 시간을 따로 내서 가르쳐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갖는 곳)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예요

# 교육안을 들여다 보기

- 소위 영재아지요.
- 그런데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해요.
- 짜증을 낸다던가 질문에 대답을 할 때도 매우 성의 없게 하구요.
- 숙제를 해오라면 딱 한 줄만 써요. 숙제를 안 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래요. 쓰기가 싫대요.
- 소위 영재아의 특성일까요?

# 교육안을 들여다 보기

- 그럴지만도 않은 것 같았어요.
-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데 이유가 엄마에게 있지 않을까...생각이 문득 들더군요.
- 준호말에 의하면 자기는 공부하는 것이 가장 싫고 그 다음은 엄마가 시키는 일이라요.
- 아마 영재로 판정되고 나서 준호의 엄마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평범한 지능을 가진 아이와는 뭔가 다른 수준의 결과를 내는 것을 원했겠지요.
- 그런데 그 기대가 준호에게는 힘들었던 것이지요.

# 교육안을 들여다 보기

- 아이는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자신이 영재라는 무거움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.
- 영재라는 측정 기준에 준호가 어디쯤이었는지는 몰라도 엄마는 준호의 수준보다 훨씬 큰 기대를 하면서 살게 된 것 아닐까요?
- 그래서 어쩌면 아이가 원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것은 영재라는 또 다른 '낙인'이 준호 저잣거리의 '진흙 땅의 아이'답게 살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닐런지요.

#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의

- 교육이란?
- The educational achievement is not to make the strange seem familiar, but to make the familiar seem strange.
- It is seeing the wonderful that lies hidden in what we take for granted that matters educationally.

# 학습에 대한 새로운 정의

- 배움이란 자기가 배운 것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주체를 구축해 가는 생성과정이다. 공부를 끝낸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한다. 공부는 이런 역동적인 과정이다.
-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." -
- 우치다 타츠루의 『하류지향』 中 180p-

# 수강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

- 내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만인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
- 하물며 모두가 나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.
-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가능하면 그러지 말아 주기 바랍니다.
- ‘생각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가는 혹은 무너뜨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